■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93-323.
http://doi.org/10.17948/kcs.2020..86.293

한국학의 근대성 고찰*

이지원(李智媛)**

목 차

1. 머리말
2. 동아시아적 근대성
3. 자국학으로서 근대성
4. 식민지 조선학으로서 근대성
5.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학의 탄생은 세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가 국민국가나 민족단위로 설명하는 근대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를 한국학의 성립기로 보고, 한국학 성립에 작동한 근대성(modernity)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학의 근대성을 3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첫째는 동아시아적 근대 문화정체성 만들기이다. 둘째는 세계 근대 학술사에서 자국학(National Studies) 탄생의 보편성이다. 셋째는 식민주의와 그에 대한 사상적・실천적 대응이다.

19세기 이래 동아시아는 서양이 주도한 세계체제에 의해 타자화되었다.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적 근대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시아의 정체

* 이 글은 2019년 7월 제20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기조발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대림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성을 포기하지 않은 국민국가와 근대 주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때 동아시아 3국은 '國粹'라는 번역어를 공유하며 근대 국가・국민의 문화정체성을 만드는 지적 연동성을 보여줬다. 한국학은 세계사적・동아시아적 공통점과 연동되어 한국근대사의 실천적・사상적 특징을 발휘하며 탄생했다. 한국학의 형성을 동아시아와의 연동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계사적・동아시아적 프레임으로 한국학의 위상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학은 세계 근대 학술사에서 자국학(National Studies) 탄생의 보편성을 갖는다.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전통을 '창출(invention)'하고, 국사・국어 등 '자국문화(national culture)'를 체계화하는 것은 근대 민족(국민)주의 시대 학술사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국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만들기의 시도는 일제 강점 이전 국어, 국사 등 자국학의 모색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독립된 국민국가 지향의 문화정체성 만들기였다.

1910년 이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제국 지역(Japanese Imperial Area)의 일부가 되어 식민지적 강제와 규정을 받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식민과 반식민의 한국연구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의 기표에 여러 기의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선학' '조선전통'과 관련한 기표들이 다양한 기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제시기 사상적・실천적 경향과 연계하여 '조선학'의 세분화・입체화가 필요하다. 그렇게함으로써,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변화 발전한 한국학의 근대 한국 학술사의 내용과 학문적 체계화가 풍부해 질 것이다.

주제어: 한국학, 조선학, 동아시아, 근대성.

1. 머리말

오늘날 지구촌은 지구공동체(Global community)의 다문화(Multi-Cultural)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다문화시대에 세계인과 소통하고 지구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적・문화적 교류와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국가나 민족 단위의 문화정체성을 발휘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세계의 문화다양성 속에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학(korean Studies)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1] 한국학은 타자를

1)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3; 이지원, 「글로벌 코리아의 한국학」 『제13회 세계코리아포럼논집』, 국제코리아재단, 2012b.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사상적 학문적 변화와 성장을 해왔다.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후 세계 속에 한국을 설명하기 위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대두하고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본격화하였다.[2)]

그러나 한국학의 근원은 세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나 민족 단위에 대한 인식과 설명이 대두하는 근대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 세계사에서 국가나 민족 단위의 역사, 문학, 정치, 경제, 관습, 예술, 사상 등의 개별성을 연구하고 세계인과 소통할 필요가 본격화한 것은 근대 이후부터이다. 안으로는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했고 밖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의해 국가와 지역 간 교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국민(민족)은 중세시대의 신분을 대체하는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와 소통이 많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의 집단적 정체성은 더욱 필요해졌다. 한국에 대한 국가와 민족 단위의 문화정체성과 그에 대한 지식은 근대의 역사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 문화는 오늘날 글로벌 문화다양성 시대에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근원으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학이 성립하게 되는 근대성(modernit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학의 탄생은 근대의 집합적 문화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역사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학의 근대성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동아시아적 근대성이다. 서세동점시대 이후 동아시아는 서양이 주도한 세계체제에 의해 타자화되었다. 타자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일부가 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서구적 근대화를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시아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국민국가와 근대 주체를 만들고자 했다.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 한국의 동도서기 등은 동아시아와 서양의 19세기적 만남에서 나온 동아시아적 정체성의 표현이었다. 그러한

2) 서은주・김영선・신주백 편, 『권력과 학술장 ; 1960년대-1980년대 초반』, 혜안, 2015.

개념들은 내적으로 각각 근대 국민국가 건설 구상과 어떠한 식으로든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국민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때 동아시아 3국은 '국수(國粹)'라는 번역어를 공유하며 근대 국가·국민의 문화정체성을 만드는 지적 연쇄를 보여줬다.[3]

둘째는 세계 근대 학술사에서 자국학(National Studies) 탄생의 보편성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전통 '창출(invention)'을 하고, 국사·국어 등 '자국문화(national culture)'를 체계화하는 것은 근대 학술사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4] 근대 국민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은 근대 민족주의·국민주의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 정서를 자극하고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영광스러운 기억들은 선택되고(selecting), 통일된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억들은 망각되게(forgetting) 된다.[5] 근대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과거의 모습을 소환하고 더욱 사실에 가깝게 하는 지적 욕구는 자국학(National Studies)의 탄생을 추동했다. 근대 한국학은 그러한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동되어 한국근대사의 실천적·사상적 모색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적어도 일제 강점 이전 그러한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국학 모색은 독립된 국민국가 지향의 문화정체성 만들기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근대성이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 근대 국민국가의 자국학 발전이 순조롭지 못했다. 일본 제국 지역(Japanese Imperial Area)의 일부가 되어 식민지적 강제와 규정을 받는 비주체적인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식민성을 극복하며 해방과 독립의 근대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적 고민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일제시기에는 근대 학문의 분과학문적 내용이나 방법론의 도입 속에서

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4) Eric Hobsbawm,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Timothy Baycroft, *Nationalism in Europe 1789-1945,*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5) Ernest Renan, 신선행 역,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Ernest Renan, *Qu'est-ce qu'une nation? et autres ecrits poliitiques,* Paris: Calmann Lévy, 1882.

식민지 지식・문화 권력에 의해 타자화 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상적・학문적 과제였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학'이라는 기표가 정착되었다. 동일한 기표(signifiant)지만 여러 의미를 담는 기의(signifier)가 착종되면서, 지역성・향토성을 강조하는 조선역사・조선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상이 넘쳐났다.[6]그러나 식민지하 문화정체성은 독립된 근대국가의 주체성 회복을 의도하는 것도 있었고, 제국 일본의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 식민지 토착의 문화정체성 강조 차원에서 의도된 것도 있었다. '조선적'이라는 기표는 식민주의나 반식민주의 학문에서 모두 공유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학'이라는 기표는 독립된 국가 대한민국의 '국학(National Studies)', '한국학(Korean Studies)'으로 대체되었으나, 식민성과 반식민성, 관념과 유물 등 여러 사상의 결이 착종된 채 현대의 학술장으로 넘겨졌다.

학문은 시대의 반영이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사상적 고민의 결과라는 원론적인 문제의식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학의 학문적 지향과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에 한국학의 학술사가 있다. 한국학 성립의 역사성을 보편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한국적 특수성의 다양한 면모를 구명함으로써 한국학의 위상과 특징을 세계 근대 학술사 영역에서 구축하고 연구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세기 말 근대 문화정체성 만들기가 추동된 시기부터 일제 식민지 시기를 근대의 한국학 성립기로 보고, 한국학 형성에 작동한 근대성의 세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적 근대성

1) 타자화와 주체화의 중첩

동아시아의 근대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충격에 대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

6) 이태훈・정용서・채관식 편, 『일제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목록』, 선인, 2015;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 선인, 2015; 이지원, 「'민족문화'의 기표와 기의, 문화헤게모니」, 『한국사, 한 걸음 더』, 푸른역사, 2018.

16세기 대항해시대 이래 전 지구를 무대로 활보하던 유럽의 나라들은 19세기에 자본주의를 엔진 삼아 해양의 물결을 가르고 동아시아로 다가왔다. 그 물결은 실크로드 이래 그 어떠한 동서양 교류의 속도와 양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시장의 탄생을 예고하며, 독점과 침략의 역사를 주도했다. 독점과 침략이 난무하는 시대에 동아시아인들은 당혹했고 삶은 곤궁해졌다. 혼동과 곤궁의 위기에서 동아시아인들은 서양의 생산력과 제도를 관찰하며 생존과 부국강병의 방략을 고민했다.

자본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근대적 인간—계몽된 국민, 자유로운 개인, 산업사회의 노동자—의 탄생,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의 전환 등의 방략은 서양을 모델로 한 근대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번역어인 문명·문명개화 = civilization은 한자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공유되었다. 서양의 지식과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과 그 용어의 내용에 대한 상상이 확산되었다. 동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은 서구적 문명화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과거로부터 일대 전환과 탈피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을 꾸면 꿀수록 동아시아는 낙후된 비문명의 지역으로 타자화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을 동양 폐기 = 근대화 = 서구화의 도식에 빠져들게 하였다. 세계시장과 만국공법의 국제관계에 의해 서양 중심의 세계체제가 강고해지면서 그러한 가치는 깊고 넓게 확산되었다. 서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스스로도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화하여 자신을 타자화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한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가 되는 것, 즉 탈아입구(脫亞入歐)는 그것을 함축한 표현이었다. 서양 문명을 기준으로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perspective)이 정착되었다. 1970년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Orientalism오리엔탈리즘』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계화의 기준이자 권위로 난공불락의 두터운 벽을 만들었다. 동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은 세계화 = 문명화를 위해 과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동아시아의 근대는 일체의 '과거의 것'을 타자화함으로써 진보한다는 명제 속에는 과

거와의 단절을 문명화로 생각했다. 근대 = 문명화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과거 전통은 낙후된 것, 열등한 것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었다. 서양적 문명화에 대한 욕망은 상대적 열등감을 낳았고, 열등감은 서양의 문명화가 제국주의 침략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낙후된 아시아의 폐기를 요구했던 세계화 = 문명화는 동아시아의 주체화를 추동했다. 만국공법의 국제관계는 그러한 필요와 욕망을 자극했다. 각 국가의 평등한 원자적 관계를 전제로 한 만국공법체제는 서양이 만든 19세기의 세계체제로, 평등한 관계를 내세우며 강대국의 주도권을 관철시키는 국제체제였다.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질서 속에서 지역 공간의 안정적 유지를 전제로 한 아시아의 중화주의 질서는 낙후된 비문명의 증거였다. 만국공법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강요당한 동아시아는 이전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다른 새로운 국가로서 정체성과 네임카드를 필요로 했다.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매개로 하지 않고 만국공법체제라는 새로운 귀속 집단을 전제로 한 국가와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더욱 필요해졌다. 세계화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주체화의 욕구를 자극했다.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 중심의 세계화에 의해 타자화와 동시에 주체화가 교차하는 문명전환의 시기였다. 서양을 모델로 자본주의 근대화, 국민국가를 욕망하되, 반서양 정체성에 대한 욕망의 교차였다.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국민국가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만드는 문화기획을 자극했다. 타자와 구별되는 집합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문명화=근대화=세계화의 보편적인 과정이자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민족)의 근대적 정체성을 만드는 문화적・사상적 모색을 낳았다.

2) 문화정체성 만들기의 동아시아 알고리즘

서양적 문명화를 지향하되 타자와 구별되는 집단적 정체성의 단서는 옛것들과 무관할 수 없었다. 주민 집단이 혈연, 언어, 역사 등 '옛 것 = 전통'

을 공유해온 문화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 = 문명화로 나아갈 선택을 하는 순간 과거 동아시아의 전통은 낙후된 것, 열등한 것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전통을 호출하는 것은 근대화 = 문명화에 모순되었다. 여기에서 '전통의 역설(paradox)'이 성립한다. 전통은 문명화를 위해 배척해야 할 요소지만, 세계체제에서 대외적으로 정체성을 보이고, 대내적으로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를 위해 유용하고 익숙한 소재였다. 이것이 바로 근대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과거 전통과 근대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주의를 '상상의 공동체'로 보고 특수한 문화적 조형물로 보았던 민족담론[7]과 앤서니 스미스가 근대와 전근대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민족과 민족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민족담론[8]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즉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민족의 성격을 정의하는 요소들—인종, 종교, 언어, 지리, 역사 등은 전통에서 이어져 온 문화들이다. 문화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왔던 익숙한 것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준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기술, 상징들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라는 개념에는 과거의 전통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 성립된다.[9]

이에 동아시아의 문명화를 지향한 지식인들은 과거의 전통을 근대적 정체성의 소재로 소환하였다. '과거의 전통'은 근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에 의해 선택되고(selecting) → 호출되고(calling) → 해석되어(interpretation) → 상징화(symbolizing)의 길을 걷는 '근대의 전통'이 되었다. 서양에서도 근대 민족주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이 민족화(nationalized)되어 민족주의 문화 규율을 만들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홉스봄이 말했던 '전통의 창출(invention of tradition)'이다. 동아시아의 근대를 만들기 위한 '전통'이었고, 근대의 문화기획으로 재현된 '전통'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을 근대 문화정체성 만들기의 도구로 삼는데 가장 앞

7) 베네딕트 앤더슨, 앞의 책, 23면.
8) 앤서니 스미스, 『족류 :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9) 피터 버크, 『문화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6, 53면.

장선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 중심에 쿠가 가쓰난(陸羯南), 시가 시게다카(志賀重昂),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등이 있었다.

이들은 메이지 정부의 극단적인 서구지향의 근대화에 맞서 일본의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여 일본의 국가정신・국민정신의 발양을 계몽했다.[10]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와 함께 메이지 초기 언론계를 대표하던 인물 쿠가 가쓰난은 1889년 신문『일본(日本)』을 창간하고, 근대 일본정치사상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되는『근시정론고(近時政論考)』(1891)를 저술하여 '국민'을 중심으로하는 입헌적 국민주의를 주창하였다. 삿뽀로 농학교를 졸업한 지리학자이자 도쿄영어학교 교사 출신 시가 시케다카는 1888년 도쿄대학을 졸업한 철학가 미야케 세쓰레이와 세이쿄샤(政教社)를 차리고『일본인(日本人)』을 창간하였다.

이들에 의해 '국수(國粹)'라는 말이 탄생했다. '국수(國粹)'가 한자여서 중국에서 그 용례가 시작된 줄 알지만, 국수는『日本人』1-3호에서 nationality의 번역어에서 시작된 신조어였다. 일본 국민, 일본국가가 되는 데에는 일본의 무형의 전통과 정신 등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특성을 통해 nationality = 국수를 만들고 보존할 것을 강조했다. 이때 일본의 국수는 새로운 근대 국가인 메이지 일본의 국가정신 '일본혼(日本魂)'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었다. 외래의 정신이나 제도가 아닌 일본 내부의 것에서 찾고자 했다. 이때 일본혼을 만드는 문화 요소는 '과거'의 요소들이었다. '과거'는 '현재'의 의도로 호출되고 해석되기 시작했다. 시가 시게다카는 1894년 국토의 자연이나 풍토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킨 국수주의 인문지리서『일본풍경론(日本風景論)』를 집필했고, 미야케 세쓰레이는 1891년『진선민일본인(眞善美日本人)』,『위악추일본인(僞惡醜日本人)』를 집필하여 서양철학을 섭렵한 바탕 위에서 일본 국수주의의 철학적 입장을 정식화했다.[11]

이후 일본혼을 촉발하고 계몽할 수 있는 과거 전통들이 새로운 일본국가

---

10) 山本新,「歐化と國粹」,『周邊文明論—歐化と土着』, 東京: 刀水書房, 1985; 色川大吉,『明治の文化』, 東京: 岩波書店, 1982; 宋本三之介,「政教社」『明治思想における傳統と近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11) 鹿野政直,「ナショナリストたちの肖像」,『日本の名著』 37, 陸羯南・三宅雪嶺, 東京: 中央公論社, 1977;『新編世界人名辭典—日本編』, 東京: 東京堂出版, 1996;『三宅雪嶺集』近代日本思想大系 5, 東京: 筑摩書房, 1975.

의 문화 아이콘으로 호출되었다. 요코하마 출신의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이 『동방의 이상(東邦の理想)』(1903), 『일본의 자각(日本の自覺め)』(1904) 등을 집필했고, 『The Book of Tea 茶の本』(1906)를 발표하여 서양세계를 향하여 다도를 일본의 격조 있는 문화이자 정체성의 상징임을 알렸다. '무사도(Bushido)' 역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단어이다. 무사도를 일본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로 만든 사람은 일본의 사상가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였다. 그는 1899년 미국에 체류하면서 『무사도 Bushido, the Soul of Japan』를 집필했다. 그는 일본에도 서양의 기독교처럼 보편적인 도덕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오카쿠라 텐신과 니토베 이나조는 『The Book of Tea 茶の本』와 『무사도 Bushido, the Soul of Japan』를 처음부터 영어로 집필했다. 이는 다분히 서양을 의식하고 서양을 향해 일본의 전통에 입각한 정체성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화 = 문명화와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통을 재구성하여 일본 국민문화의 정체성을 만든 성공 사례가 되었다.

19세기 말 일본이 번역한 '국수'는 중국과 한국에도 수입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혼돈과 위기 속에 있던 청나라는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의 흐름에서 중국적 전통과 문명화의 결합과 재발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1898년 무술정변 이후 보다 진전되었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 실패 이후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일본의 요코하마로 망명한 양치차오(梁啓超)는 거기에서 쿠가 가쓰난(陸羯南), 미야케 시쓰리에(三宅雪嶺), 시가 시게다카(志賀重昂) 등의 글을 보고 근대 서구적 의미의 '애국' 개념을 소개하며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 즉 혼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01년 『중국사서론(中國史敍論)』에서 중국민족이 지켜야 할 국수의 성질을 강조하며, 1902년 『국학보(國學報)』를 창간하여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수보존(國粹保存)을 주의로 삼고 구학(舊學)을 취해 마세(磨洗), 흥대(興大)케 해야 한다"[12]는 국수보존을 주장했다. 그는 "천하에 무혼(無魂)의 나라가 있는가. 상무(尙武)의 풍(風)은 애국심과

12) 『淸議報』 90・91, 1901.9.3・13; 『飮氷室文集』 下(影印本), 1907, 以文社, 200면.

자애심이 화합하여 이루어진다. 금일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혼(中國魂)의 제조이다"[13]라고 하여 춘추전국시대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활약한 무용(武勇)들 가운데에서 중국 고유의 상무정신(尙武精神)을 '제조'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의 '일본혼' '무사정신'을 모방한 중국적 국가정신의 선양이었다. 또한 황지에(黃節)[14]는 1902년 「보존국수주의(保存國粹主義)」에서 "국수라는 것은 국가의 특별한 정신이다[夫國粹者, 國家特別之精神也.]"[15]라 하여 일본의 국수주의자나 양치차오의 '국수'에 대한 이해와 유사하게 '국수'를 받아들였다. 黃節의 국수주의는 章炳麟, 劉師培, 鄧實 등 당시 국학자들과 합세하여 국학보존회의 설립으로 이어져 배만혁명(排滿革命) 사조로 발전하였다.[16]

한국에서 '국수' 사용도 동아시아의 지식장과 연동되었다. 1890년대 말 "溫故而知新 明體而達用"[17]을 취지로 창간되었던 『황성신문』과 박은식, 유근(柳根), 신채호, 李沂(이기), 장지연 등이 수시응변(隨時應變)[18]의 유학적 변통론을 적용하여 '국민'으로서의 계몽과 소양이 강조되었다.[19]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논어의 명제는 한국이 서양을 접하면서 새로운 한국이 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 접맥되었다. 고루하고 완고한 유학의 명분론이 아니라 새로운 서양학문을 참작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자는 '구본신참'의 논리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요코하마에 망명하며 국수보존을 피력하고 신국민의 양성을 강조하던 양치차오의 사상과 쉽게 연결되었다. 근대 서구적 의미의 '애

13) 「中國魂安在乎」, 『飮氷室文集』 下(影印本), 以文社, 1907, 812면.
14) 黃節(1873-1935)은 1902년 同學인 鄧實과 『政藝通報』를 창간했으며, 『國粹學報』를 통해 배만혁명사상의 고취에 주력했다. 1908년 南社 발기에 참여했으며 신해혁명 이후 北京대학, 淸華대학 등 교수를 역임했다.
15) 『政藝通報』 壬寅 政學文編; 鄭師渠, 『晩淸國粹派—文化思想硏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6면 재인용.
16) 이른바 '淸末 國粹派'로 부르는 이 그룹은 1905년 『國粹學報』를 창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신해혁명기 고유한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국적 민족주의로서의 특징을 발현시켰다. 鄭師渠, 앞의 책, 9-16면; 앞의 글, 1장; Bernal Martin, "Liu Shih-p'ei and National Essence", ed. by Chalotte Furth, *The Limites of Change*, Harvard Univ. Press, 1976, pp.104-109.
17) 『황성신문』, 1898.9.6.
18) 「解開化怨(續)」, 『황성신문』, 1900.9.7.
19) 김도형,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2018.

국' 개념을 소개한 그의 '애국론'이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게재된 것은 1899년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주권이 빼앗기기 시작한 1905년부터는 그야말로 '양치차오 붐'이 일어났다. 안창호 등 근대 학교 설립자들은 양치차오의 소설과 논문들을 한문 독본으로 쓰고 신문·잡지들도 양치차오의 글들을 번역해 실었다. 『이태리건국삼걸전』의 4종류 번역판 중 하나는 신채호가 내고, 초기 교육 개혁의 청사진인 『학교총론』의 번역은 박은식이 맡았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미래를 논하는 양치차오의 여러 글 들은 장지연이 옮겨 『중국혼』이라는 단행본으로 냈다. 한국에서도 '전통'은 국민과 국가의 유기체적 관계를 강조하며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승시키는 기능을 했다. 신채호를 비롯한 애국계몽가들의 많은 글들에서 전래하는 관습, 풍속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 예전에 국가학의 시조인 부룬칠리씨가 말하되, 무릇 전래하는 풍속, 관습, 법률, 제도가 그 국가 발달에 방해가 없으면 이를 보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20]

신채호는 이 글 「국수보존론」에서 국가유기체설을 주장한 스위스태생의 독일 법학자·정치학자 부룬칠리(Bluntschli)의 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양치차오도 1903년 『신민총보(新民叢報)』에 「정치학대가백륜지리지학설(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라는 글을 썼는데,[21] 신채호도 당시 일본, 중국에 연동된 국가유기체설의 지식장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근대 국민·민족의 정체성 계몽에서 '국수'는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국수'는 타자와의 관계가 새로운 원리에 의해 확대되는 동아시아의 근대에서 전통에 근거한 문화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algorithm)이었다. 서양주도의 근대화 물결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탄생의 알고리즘이었다. 그것은 서구적 근대화를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민족마

20) 「國粹保存說」, 『대한매일신보』, 1908.8.12.

21) 량치차오의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은 『新民叢報』 32, 39·39호 합본에 실렸는데, 량치차오의 이 글은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가 번역한 『국가학(國家學)』, 東京: 善隣訳書館, 1899, 14면을 완전히 베끼다시피 한 것이라 한다. 강중기 역, 「량치차오,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의 학설」」, 『개념과 소통』 제8호, 한림과학원, 2011.

다 역사, 문화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정체성을 만들려는 동아시아 지식장의 성과였다. 국수는 동아시아 근대가 필요로 한 전통이었고, 근대의 문화기획과 담론에 의해 '재현된 전통'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을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으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한 '국수'는 동아시아 국가·국민의 근대정체성 만들기 알고리즘이었다.

3. 자국학으로서 근대성

1) 문명화, 애국심, 자국인식

한국은 개항 이후 만국공법체제를 수용하며 위로부터의 근대 국가 수립의 입헌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구성원을 근대적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상과 실천이 진행되었다.[22] 정치적으로 입헌과 민권에 대한 실천은 만민공동회의 해체와 전제왕권국가인 대한제국의 탄생으로 좌절되었지만, 민권과 입헌의 길은 문명화의 모습이었고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 바탕에는 18, 19세기 사회적 불균형과 권력 집중을 비판했던 진보적인 실학사상과 백성들의 삶의 몸짓들이 민란, 농민전쟁 같은 사건으로 발현되었던 역사 경험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억의 유전인자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성공 총아로 다가온 서양 국가와 그것을 아시아에서 앞장서 모방한 일본을 보면서, 국권을 지키는 주체에 대한 근대적 자각과 계몽의 근대 기획으로 발휘되었다.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민권과 민권에 기반한 국권에 대한 열망은 '애국'이라는 구호를 계몽과 개혁의 중심에 놓게 되었다.

1904-5년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성립 이후 각종 계몽단체나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미디어의 주제어로 '애국' '애국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애국심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해 헌신하려는 의식이다. 애국심은 근대 국가의 국민된 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새로운 정서였다. 사회구성원이 국민됨을 자각하는 이성과 감정의

22)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상·하), 일조각, 1988; 김도형, 『대한제국기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왕현종,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복합물인 애국심은 국민국가 소속원으로서 자기규정(self-regulation)을 하는 공감과 헌신의 신념이었다. 애국심은 중세의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정이었다. 당시 계몽의 논설들은, 애국심은 근대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단결시키는 선진적인 문명국들에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애국계몽과 자수자강(自守自强)의 기치를 내걸고 성립한 대한자강회의 부회장 윤효정(尹孝定)은 '현대의 국가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법제도 완비하고 교육도 융성하며 산업도 발달하고 외교와 기술도 아름다워지고 문학도 번창하여 국가가 광채를 발휘한다'고 하였다. 애국심은 문명화의 모습이었다.

> 영미인이 도처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자기 국가를 문명에 이르게 한 바이니, 애국 (…) 자기국가를 사랑함은 세계 인류의 공통한 원리원칙이다.[23]

애국심은 문명국가의 국민(인민)의 덕목이며 근대의 패토스이자 열정이었다. 국가와 국민의 유기체적인 관계 인식 속에서 애국심은 강조되었다. 유기체적인 국가관은 유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학문의 기본원리로 배우고 현실 정치에서 실천해 온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는 익숙한 결을 갖고 있었다. 유교적 지식과 가치관의 세례를 받았던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은 만국공법 체계가 수용되고 서양정치사상이 들어올 때도 유교적 지적기반에서 유기체적인 국가관을 쉽게 수용하는 기반이 되었다.[24]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자국인식은 "국민 전체의 단결하는 정신역량"[25]으로서 '국혼', '조선혼'의 강조로 나타났다. 태극학보에 최석하는 "일본인의 야마토혼(大和魂), 러시아인의 러시아국혼(俄國魂), 프랑스인의 프랑스국혼(法國魂), 미국인의 미국혼(美國魂)이 있어 문명발달과 부국을 이루었듯이, 우리조상인 단군기자 이래로 전하는 애국성의 국혼, 즉 조선혼을 발휘하자."[26]

---

23) 김지관, 「문명의 준비」, 『태극학보』 제18호, 태극학회, 1908.2.

24) 중국의 梁啓超나 메이지기 일본의 사상을 이끈 西周, 福澤諭吉, 加藤弘之 등은 모두 홉스나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사상이나 천부인권설을 우선시하는 정치사상보다 엘리네크나 부룬칠리 같은 유기체적인 국가론을 더 친밀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애국계몽운동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관료도 마찬가지였다. 김도형,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94.

25) 오세창, 「告靑年諸君」, 『대한협회회보』 제4호, 대한협회, 1908.7.

라고 하여 근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국정신을 강조했다. 당시 자국인식을 강조한 글들에서는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국체의 특질 = 국수(國粹)에 대한 존경의 관념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소개한다고 적고 있었다.

2) 국어, 국사 인식과 자국학 모색

자국인식은 계몽의 학문과 교육을 추동했다. 그것은 국어, 국사 등 분과학문을 통한 연구와 교육이었다. 전근대시대 학문은 유교의 경사일체(經史一體)의 학문관에 의해 통합적 사고와 실천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보통교육이 아니라 치인(治人)을 위한 정치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 보통교육의 교과와 지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과거의 역사・역사서술은 근대의 국민(민족)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역사・역사서술로 재구성되어야 했다. 그것은 중세시대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정통론적인 왕조사(dynasty history)를 민족사・국가사(national history)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에 당시 계몽지식인들은 민족사・국가사로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역사는 국민의 귀감이다. 인성을 증장하여 국성(國性)을 배양함은 역사학에 있다.[27]
> 역사가 완전하면 국성이 완전하고 역사가 불완전하면 국성 또한 불완전한 것이다.[28]
> 국가의 연원을 모르면 애국심이 생길 수 없으며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29]

국민의 역사인 국사는 조선왕조를 넘어서는 민족사・국가사였다. 민족사・국가사를 통해 민족・국민 정체성의 연원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때 조선왕조를 넘어서서 민족 = 국민의 시원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국조'가 부각되었다. 조선왕조의 시조인 이성계가 아니라 민족(국민)국가의 시원을 이루는 국조는 새로

26) 최석하, 「朝鮮魂」, 『태극학보』 제5호, 태극학회, 1906.12.
27) 이석용, 「역사와 국성의 관계」, 『서북학회월보』 제18호, 서북학회, 1909.
28)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대한협회회보』 제2・3호, 대한협회, 1908.
29) 장지연, 「국조고사」, 『대한자강회월보』 제9호, 대한자강회, 1907.2.

운 국민통합의 '근대적 위인'으로 해석되었다. 갑오정권에 의해 편찬된 국사교과서 『조선역대사략(朝鮮歷代史略)』이나 『조선략사(朝鮮略史)』에서는 단군 원년을 표시하며 중국의 요(堯)와 나란히 개국시조로서 단군의 족적을 상세히 소개했다.[30] "단군 이래 사천재(四千載)에 이르는 이천만 위대한 조선혼"[31], "우리 사천 년 신성민족(吾四千年神聖民族)"[32]을 운운하는 역사적 유구성이 강조되었다. 신채호는 1908년 8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讀史新論)」을 발표하여 단군을 국조로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교적 실현으로서 대종교가 창립되고 역사연구가 전개되는 등 이른바 '단군 내셔널리즘'의 기반이 형성되었다.[33] 이와 함께 고구려의 무용(武勇)과 위인들이 애국 자강정신의 화신으로 호명되었다. 일찍부터 거론되던 을지문덕은 물론이고 러일전쟁 이후 널리 알려진 광개토대왕비문을 통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한국의 문명부강과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했다. 박은식은 『황성신문』의 논설에서 광개토대왕비문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다루었고,[34] 신채호도 광개토대왕을 알렉산더 대왕에 비견하여 고구려의 강대함을 선전했다.[35] 서북학회는 서북지방이 단군과 기자에 의한 문명의 발상지이고, 과거 고구려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자부하며 백두산 고적, 동명성왕 유적,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휴정대사 등의 유적과 광개토대왕비문 특집을 싣기도 했다.[36] 일제시기 민족운동이나 민족주의 문화운동・민족주의 역사학에서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국조・국사인식과 단군 중심의 민족의식을 강조한 역사연구와 보급은 이 시기 국사 만들기에서 시작되었다

국어・국문은 '민족' '국민'의 근대 언어인 민족어(national language)를 만드는 것으로서 자국학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른 언

30)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제2장.
31) 「정신과 감각」, 『황성신문』, 1907.2.6.
32) 장지연, 「團體然後民族加保」, 『대한자강회월보』 제5호, 대한자강회, 1906.11, 6면.
33)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2.
34) 「讀高句麗永樂大王墓碑謄本」, 『황성신문』, 1909.1.6.
35) 「韓國의 第一豪傑大王」, 『대한매일신보』, 1909.2.25-26.
36) 『西友』 17, 1908.5; 『西友』 3, 1907.2; 『西友』 2, 1907.1; 『西友』 11, 1907.10; 『西友』 14; 『西北學會月報』 1, 1908.6; 『西北學會月報』 1, 1908.6; 『西北學會月報』 9, 1909.2.

어와 문자를 통일된 문자와 어문으로 정립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각성과 주체적 민족(국민)의식이 형성되면서 반중세 = 반중국의 의식과 함께 한자를 대신하여 훈민정음을 '국문'으로 호명하는 의식이 강해졌다. 근대적인 국어·국문 인식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 기존의 언문을 '국문(國文)'이라 고치고 국가의 공문에서 국문 또는 국한문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그리고 근대국가로서 문명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어·국문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1895년 5월 개교한 한성사범학교에서 국문 교육이 시작되었고,[38] 이어 「소학교령」 등 교육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서 국문 교육이 실시되었다.[39] 1896년에는 순국문지로서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관보(官報)』를 비롯한 공문용 문자가 한문에서 국한문으로 바뀌는 등 국어·국문 인식과 보급은 진전되었다. 1897년에는 이봉운(李鳳雲)이 순국문으로 저술한 『국문정리(國文正理)』가 간행되었는데, 그는 서문에서

> 대뎌 각국 사ᄅᆞᆷ은 본국 글을 슝샹ᄒᆞ야 학교를 설립ᄒᆞ고 학습ᄒᆞ야 국졍과 민ᄉᆞ를 못ᄒᆞᆯ 일이 업시ᄒᆞ야 국부 민강 ᄒᆞ것ᄆᆞ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은 ᄂᆞᆷ의 나라 글ᄆᆞᆫ 슝샹ᄒᆞ고 본국 글은 아죠 리치를 알지 못ᄒᆞ니 졀통ᄒᆞᆫ지라 (…) 문명의 뎨일 요긴ᄒᆞᆫ거슨 국문이ᄃᆡ 반졀리치를 알 사ᄅᆞᆷ이 젹기로 리치를 궁구ᄒᆞ야 언문 옥편을 ᄆᆞᆫᄃᆞᄅᆞ (…)[40]

라 하여 문명의 제일 요건으로 '국문'의 필요성을 꼽았다. 독립 = 문명 = 반중화 = 국문이라는 근대 문자인식이었다. 애국계몽의 지식인들은 국어·국문을 "종족과 언어가 동일한 인민이 서로 단결하여 유기적 국가를 구성"[41]하는 "국민의 정수(精髓)"[42]라고 표현했다. 국문 숭상은 '국수 보존의 대주

37) 『高宗實錄』 권32 고종 31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公文式 제14조. "法令·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38) 『官報』 121(1895.7.24), 한성사범학교규칙 제11조 학과정도표에 '國文 講讀, 作文日用書類記事文及論說文'으로 규정되어 있다.
39) 1895년 7월 19일 勅令 145호로 반포된 「小學校令」, 8월 15일 學部令 3호로 반포된 「小學校令大綱」에는 독서와 작문 과목 등을 설치하여 초등교육부터 국어·국문의 교수를 규정했다. 『高宗實錄』 卷 34 高宗 32年 7月 19日; 『官報』 122 1985年 8月 15日.
40) 『歷代韓國文法大系 제3부』 2, 탑출판사, 1985.
41) 牧丹山人, 「自主獨行의 精神」, 『太極學報』 第21號, 太極學會, 1908.2.
42) 李寶鏡,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太極學報』 第21號, 太極學會, 1908.2.

의'[43]라고도 했다. 중세의 문자인 한자를 폐기하고 근대국가의 '국문'이라는 문자체계 확립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학교교육에서 국어·국문 교육을 위해 서구문법을 도입한 국문법 연구도 진행되어 유길준(兪吉濬)의 『조선문전(朝鮮文典)』(1906), 주시경(周時經)의 『대한국어문법』(1906), 김규식(金奎植)의 『대한문법』(1909), 김희상(金熙祥)의 『초등국어어전(初等國語語典)』 3권(1909)의 문법책이 필사 또는 유인물로 간행되었다.[44]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사상적·학문적 노력은 국어, 국사 등 자국학(National Studies)으로서 한국학에 대한 모색이 추진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근대 국민으로의 계몽과 국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본국 역사의 편찬과 교육을 시행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도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하며 국사와 국어의 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계몽과 소양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사, 국어 인식에 기반한 자국학 영역은 일제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한국학 분야의 원형이 되었다.

4. 식민지 조선학으로서 근대성

1) 자국학에서 조선학·문화민족학으로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이후 보편적인 자국학으로서 한국학의 존립은 불가능해졌다. 국수라는 용어 대신 '족수(族粹)'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45] 독립된 국가의 자국학으로서의 위상은 위축되었다. 또한 일제는 한국적 국수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동화주의 문화정책을 추진했다.[46] 그럴

43) 申采浩, 「國漢文의 輕重」, 『大韓每日申報』, 1908.3.19; 「教育辯論」, 『湖南學會月報』 제2호, 호남학회, 1908.7.

44) 金敏洙, 『新國語學史(全訂版)』, 일조각, 1986, 211면; 고영근,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1998.

45) 일본에 한국병합된 직후인 1910년 10월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광문회의 광고문에 "족수(族粹)"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今에 古文이 일로 散亡하고 族粹[밑줄: 인용자]가 일로 衰頹하야 五千年往聖先哲의 赫赫한 功烈은 그 光이 晦하고 皇皇한 述作은 그 響이 消하며 億萬年後孫來裔의 久遠한 靈能은 그 源이 渴하고 深切한 覺思는 그 機가 絶하려 하며 또 한편으론 天下萬世에 朝鮮上 眞面目과 朝鮮人의 眞才智가 영원히 隱藏하고 埋沒하려 하니 (…)" 「朝鮮光文會廣告」, 『少年』, 1910.12, 57면.

46)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은 한국인을 일본 국민화하는 것이었다. 권태억,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수록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것과 차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식민지에서 저항과 국권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한국인의 문화적 욕구도 커졌다.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에서 한국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역사와 한글 교육은 자국학를 지키기 위한 저항적 문화욕구의 발현이었다.[47] 3·1운동에서 '독립'의 함성을 겪은 이후 정체성에 대한 욕구는 일제의 문화통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통'을 소환하는 역사문화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48] 1차 세계대전 이후 유행한 문화담론으로의 지적·사상적 전환의 분위기에서 일본의 문화주의 사상이 수용되었다.[49] 이에 과거의 문화가치를 계발하여 '문화적 실력'을 갖춘 '문화민족'이 되자는 논의들이 개진되었다.[50] 그것은 '전통'을 현재적 관점에서 자각·복원하여 개인의 인격적 진보와 유기체적인 민족의식, 문화정체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고대 이래 발전해 온 조선의 고유문화 = 민족문화의 특질을 탐구하고 발현하는 전통 소환의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조선학'이라는 용어는 최남선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최남선은 1922년 조선 민족의 문화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조선의 문화를 사상적·학술적으로 체계화하는 '조선학을 주장했다.[51] 그는 '애급학(埃及學, Egyptology)이 이집트인 이외의 손에 건설되고 인도의 고문화 연구가 인도인 이외의 힘으로 경

문명화』, 서울대 출판부, 2014. 당시 일본의 식민정책자들은 동화주의를 "제국주의 본국의 문화를 이입하고 본국의 국어와 각종 문물제도를 적용하여 식민지 고유의 언어, 풍속, 관습 등 각종 제도 문물을 타파함으로써 식민지 원주민의 民族精神을 본국인과 똑같이 하려는 정책"이라고 했고 식민지 원주민의 "민족성 파괴(denationalization)"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東鄕實, 『植民政策と民族心理』, 東京: 岩波書店, 1925, 90면; 矢內原忠雄, 「朝鮮統治の方針」(1926), 『矢內原忠雄全集』 1, 東京: 岩波書店, 1963, 731-735면; 東鄕實, 앞의 책, 103면; 이지원, 앞의 책, 2007, 3장 1절 참조.

47) 한영우,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 일조각, 19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1—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2001.

48)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3·1운동 100년 5권—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49) 홍선영, 「1920년대 일본 문화주의의 조선수용과 파장」, 『일어일문학연구』 제55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5; 허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0; 윤상현,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자유주의와 문화주의 담론의 인간관·민족관」,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50) 이지원, 앞의 책, 2007, 3장 2절.

51)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 『六堂崔南善全集』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암사, 1974, 416면; 류시현, 『최남선연구』, 역사비평사, 2009.

영되는 것이 이집트와 인도인의 짓밟힌 지위와 흙칠한 체면을 드러낸 것'이라 비유하며,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을 위하여 조선학의 연구 및 건설"[52]을 주장했다. 그는 '조선학'은 전승한 문화의 계통과 특질, 영향을 밝히기 위해 석기, 패총, 고분, 종교, 신화, 전설, 조선어, 불함문화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했고, 인류학, 인종학, 토속학, 종교학, 언어학, 등 서구의 선진적인 학문 방법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53]

문화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야만'에 반대되는 '문화민족', '문화인'이 되는 요체라고 설명하는 최남선류의 문화민족 담론은 1920년대에 유행하였다.[54] 그리고 '문화민족'이 되기 위한 기획에 따라 민족의 문화가치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민족문화의 역사화' 작업도 등장했다. 그것은 역사연구에서 민족사를 '문화사'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안확(安廓)의 『조선문학사』(1922), 『조선문명사』(1923),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1922), 『불함문화론』(1925), 이능화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1927),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1927),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1928),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教淵源)』(1922) 등 분야별, 주제별 문화사의 서술도 시도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통사 간행에서도 '문화사'라는 분야가 도입되었다. 장도빈, 황의돈, 권덕규, 최남선 등이 집필한 조선사 통사에서는 이전의 역사 서술과 달리 각 시대별로 '문화면'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했다. 고려의 인쇄문화, 도자기, 훈민정음 등이 '조선의 자랑'으로 표상되기도 했다.[55]

---

52) 「朝鮮의 原始相 (下)」, 『동아일보』, 1927.3.25.

53) 최남선, 앞의 책, 411면. 최남선의 '朝鮮學'은 인류학의 개념과 방법론의 도입을 강조했다. 19세기 말 계몽주의 사조의 퇴조와 문명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인류학, 문화형태학은 토속적 의미의 민족(folk) 단위의 언어, 신화, 종교, 문학, 예술 등을 연구하여 민족 속에 나타나는 정신의 발달법칙을 구명하는 데 기여했다.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法文社, 1973, 11면. 당시 인류학은 '민족학'이라고 불리었고, '민족'은 종족의 의미를 갖는 불어의 "tribu"의 번역어로 이해되었고, '민족'은 유전적 유형을 기조로 하는 단순한 부족·인종의 의미를 전제로 점차 "동일문화를 갖는 민중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갔다. 納武津, 『民族性の研究』, 東京: 日本評論社, 1920, 1-2면.

54) 崔南善은 피어칸트(Vierkandt, Alfred, 1867-1953)가 『自然民族과 文化民族』에서 사용한 '역사 없는 민족 = 自然民族', '역사 있는 민족 = 文化民族'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민족이 되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피어칸트의 자연민족과 문화민족 개념에 대해서는 W. Schmidt 著, 大野俊一 譯, 『民族學の歷史と方法』, 東京: 彰考書院, 1944, 84-91면 참조.

최남선은 1925년 「조선을 통하여 본 동방문화의 연원과 단군을 계기로 한 인류문화의 일부면(一部面)」이라는 부제의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발표하여 단군을 조선 문화가치의 출발점으로 부각하고 '단일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56] 그는 1926년부터 1930년 사이에 단군 관련 글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단군은 민족적 문화가치의 창시자・구현자이자, 민족적 동질성과 단합의 상징으로 강조되었다.[57] 이러한 '조선학'은 국민국가 지향의 민족이 아닌 인류학적 개념인 민족(ethnic, folk)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에, 제국 일본의 지역으로서 조선이었고, 제국주의의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조선학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58] 지역학으로서 조선연구는 일제 관학의 조선연구와 같이 타자성에 의해 관철되는 것이고, 조선인이 '조선학'을 연구한다고 해도 일본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다민족 국가체제의 모색'[59]과 상충되지 않았다. 조선인 자치론자들도 제국의 지역으로서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정체성을 강조했다.[60] 제국의 지역학・문화민족학으로서 '조선학'은 조선문화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강조해도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성을 견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민족운동이 국가수립의 국민운동이 아니라 인류학적 개념의 민족을 단위로 추진되던 당시 정치・사회사상의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이었다.[61]

---

55)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앞의 책, 2019, 423면. 조동걸 선생의 한국사학사 분류에서 '초기 문화사학'으로 분류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동걸, 앞의 책, 238면. 그러나 '문화사학'이라 명명한 그룹의 학문과 사상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56) 『朝鮮及朝鮮民族』, 朝鮮思想通信社, 1925; 류시현, 앞의 책.

57) 「檀君否認의 妄」, 『동아일보』, 1926.2.11-12; 「檀君論」, 『동아일보』, 192.3.3-7.25; 「薩滿教箚記」, 『啓明』 19, 1927; 「壇君新典의 古意」, 『동아일보』, 1928.1.1-2.28; 「壇君及其研究」, 『별건곤』, 1928.5; 「단군과 삼황오제」, 『동아일보』, 1928.9.1-12.16; 최남선, 「民俗學上으로 보는 단군왕검」, 앞의 책, 342면; 「壇君小考」, 『朝鮮』, 1930.11.

58)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지역학' 혹은 '지역 연구'라는 말은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추악한 신조어(Ugly Neologism)'라고 했다. 연구의 주체와 관점에 따라 타자화되는 연구의 관점과 구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59) 駒込武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243-293면;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앞의 책, 2019.

60) 이지원, 「20세기 전반기 조선 자치론의 문화적 정체성—민족 표상의 경계 읽기—」,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경인문화사, 2012a.

61) 「世界改造의 劈頭를 당하야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노라(3)」, 『東亞日報』, 1920.4.6. "조선의 민

2) 식민지 지성의 사상적・실천적 고민과 '조선학'의 경계들

여기에서 식민지 '조선학'의 경계 읽기가 필요하다. 한국근대사가 독립된 국가와 자유로운 근대인 만들기를 추구한다고 할 때, 반봉건의 근대변혁과 반제국의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병행되어야 했다. 반봉건 문명화가 한국 근대사의 한 기둥이라면, 개인이나 국가의 주권을 억압하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또한 한국 근대사의 또 하나의 기둥이다. 근대화 = 문명화가 인간 개인의 자유 욕구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수평 관계를 통해 옹호한다고 할 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또한 근대화의 모습이다.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국가,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자유의지 또한 한국학의 근대성이 추구해야 할 자국학의 요소이다. 따라서 일제시기 조선학은 독립된 국민국가의 자국학을 지향하는 것인지, 식민지의 지역학을 지향하는 것인지의 구분과 그 경계에 대한 학문적 천착이 필요하다. 일제는 동화주의 식민지배를 관철하면서 특히 1920년대 이후 식민주의 조선연구를 본격화했다. 한국의 토착성을 통해 식민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일제 관학의 조선연구가 식민지 지식장에 확산되었다.[62]

물론 식민지 문화지배의 규율과 검열 하에서 담론과 언어적 표상(wording)은 한계를 갖는다. 기표로서의 어휘는 기의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같은 기표라도 다양한 의미와 은유가 숨어있다.[63] 조선의 전통, 조선의 고유문화를 언급하지만, 자국학 담론의 '조선학'인지, 지역학 담론의 '조선학'인지, 식민학의 '조선학'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식장의 복합성과 검열의 제약에서도 '조선학'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적・학문적 차이를 읽어내

족운동이라 하얏스니 이는 國家學的 개념의 '國民'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적 혹은 人類學的 개념인 '民族'의 운동을 의미함이니 (…)"

62) 방기중, 『한국 근현대사 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장; 이지원, 「1920-30년대 일제의 조선문화 지배정책」, 『歷史敎育』 제75집, 歷史敎育硏究會, 2000;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 사업」,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신주백,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체계와 문・사・철의 제도화, 그리고 식민지 공공성」, 『한국교육사학』 제34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선인, 2018.

63) 이지원, 「'민족문화'의 기표와 기의, 문화 헤게모니」, 앞의 책, 2018.

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형성된 학문적·실천적 갈래를 파악하고 해방 후 한국학 학술사의 체계화를 위한 전사(前史)로서 구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며, 여기에서는 식민지 지성의 사상적·학문적 고민 속에서 일제 관학이나 식민주의·문화주의 조선연구에 대립하는 조선학을 구상했던 단서들을 거론하고자 한다.

신채호는 1920년대 3·1운동 이후 식민지하 민중의 실체와 민중의식에 주목하고,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국어와 국학, 국고(國故)를 일깨우는 것'은 식민지 민족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노예적 문화사상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민중적 문화를 제창'하였다. 그는 문화주의를 내세우며 '문화운동'을 하는 것은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정도에서 문화발전을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발전은 도리어 조선의 불행"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 저항하며 지배자의 문화규율에 길들여지는 노예적 문화를 없애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국수 = nationalism"이라고 했다.[64] 민중 중심의 독립된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일제 강점 이전 사용했던 '국수'라는 단어를 'nationalism'으로 직접 영어 표기하며 그 뜻을 밝히고 있다.

홍명희는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관념적·몰시대적·복고적 문화가 아니라 식민지 현실 인식에 입각한 문화 만들기를 강조했다. 봉건적 충의나 동양적 정열을 고조하는 《거북전》이나 《춘향전》류의 조선문화는 사회적 모순을 은폐할 뿐이라고 했다. 그가 당시 조선의 문화의식을 언급하는데 사용한 단어들은 '사회변혁', '계급타파', '대항', '해방' 등이었다.[65] 1926년 간행한 『학창산화(學窓散話)』에서 그는 우리말의 어원, 생활사에 대해 소개했고,[66] 신간회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에 소설 『임꺽정』을 집필하여 민중의 지도자인 임꺽

64) 신채호, 「考古篇(史論)」, 『天鼓』 創刊號, 1921.1;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개정판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1998, 267면.

65) 「新興文藝의 運動」, 『文藝運動』 창간호, 1926.1; 임형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 사계절, 1996, 69-72면.

66) 『學窓散話』는 그가 동아일보 취체역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있던 시절(1924.5-1925.4)인 1924년 10월 동아일보에 학예 기사면에 게재한 글들을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정을 통해 '조선적인 정조'를 살리고자 하였다. 식민지 대중의 삶에서 사회적·계급적 갈등의 현실 인식을 전제로 민중의 관점에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역사문학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소설 『임꺽정』은 그러한 민중관점의 "소설형식의 역사", "민중적 역사"로서 집필했다.[67]

안재홍은 식민지하 열악한 농민 노동자로 전락한 대중의 민족적 감수성을 담는 국사, 국어의 보존을 주장했다. 그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역사로 대립하는 근대 이후 역사의 속성을 통찰하며 정체성을 만드는 문화, 계급문제와 민족문제가 병존하는 문화적 중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안재홍은 1930년대 '민족으로부터 세계로, 세계로부터 민족으로'라는 '민세주의'를 주장하며, '정치적 차선책'으로서 '조선학운동'을 제기했다. 그는 조선학을 "국고(國故), 정법(政法), 역사, 지리, 외교, 천문, 역산(曆算), 병기(兵械) 등 일체 조선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고색(考索)"이라고 했다. 그리고 근대 조선학의 학문적 기반을 찾기 위해 『여유당전서』를 간행했다.[68] 조선후기 실학으로부터 주체적 근대 지향의 학문적 기반을 찾고자 한 '조선학운동'은 안재홍, 정인보 등과 일제에 의한 한민족의 타율적 발전을 비판하는 백남운 등의 맑스주의 연구에 의한 내재적 발전론 등이 세계적인 틀 내에서 한국학의 주체적 연구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백남운은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여 세계사적 보편사로서 한국사의 체계화를 시도했다.[69] 일제의 식민주의 관학과 관념적 민족주의 학문을 비판하며 1930년대 제 3의 한국학을 개척하였다. 신남철 또한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종래의 고루하고 관념적인 방법에 의해 조선의 독자성을 신비화하는 국수주의 견해'와 선을 긋는 보편주의 역사철학을 고수하며 식민지 조선학의 방향을 고민하였다.[70] 마르크스 학문과 근대 분과학 체계를 훈련받은 신세대들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내세우며 당시 지식계를 비

67) 「碧初 洪命憙 선생을 둘러싼 文學談議」, 『大潮』 창간호, 1926.1; 임형택·강영주 편, 앞의 책, 191면.
68) 이지원,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 연구에서 근대정체성 서사와 다산 정약용」, 『역사교육』 제140집, 역사교육연구회, 2016.
69) 방기중, 앞의 책.
70) 이태훈, 「신남철의 보편주의적 역사인식과 지식인 사회 비판」, 『민족문화연구』 제6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판하는 고민 속에서 또 다른 조선학을 궁리하고 표상했다.

이처럼 일제시기 '조선학'은 일제시기 지식장의 다변화[71] 속에서 실천적 학문적 지향의 다양함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식민지 이전 국민국가 지향의 자국학 수립의 전통이 식민지적 규정을 받으며 일제 식민주의 관학과의 길항관계 속에서 식민지 지성들의 실천적·사상적 고민의 다양한 결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요컨대, 식민지하 조선학은 식민지 근대의 규정과 제약 속에서 지역학·문화민족학으로부터 반식민주의 조선연구까지 다면적으로 전개되었고, '조선적인 것'에 대한 다의성(polysemy)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학의 다면적·다의적 경계들은 일제시기 한국 근대 지성의 학문적·사상적 실천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학 형성의 식민지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학의 근대성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학은 세계사에서 국가나 민족이 타자화되면서 주체화가 추동된 한국근대사의 실천적 사상적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한국학의 탄생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에 자극받아 정체성의 근대화를 모색하던 동아시아 공통의 지적 알고리즘이 연동하였다. 이때 동아시아 3국은 '국수(國粹)'라는 번역어를 공유하며 근대국가·국민의 문화정체성을 만드는 지적 연동성을 보여줬다. 그것은 동아시아 각 나라들에 근대 국가 자국학(National Studies) 탄생을 추동했다. 근대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과거의 모습을 소환하고 더욱 사실에 가깝게 하는 지적 욕구는 자국학(National Studies)의 탄생을 추동했다. 한국학의 형성은 근대 국민국가 시대 한국·한국인의 정체성을 '자국문화(national culture)'로 만들고자 했던 학문적 욕망과 시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시대 근대 학술사의 보편성을 갖는다. 19세기 말 세계사의 흐름을 자각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자국문화 만들기를 근대 애국심이 발휘되는 문명화의 모습

71)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 학술장의 재구성에 관한 시론적 탐색」, 『역사문제연구』 제26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으로 인식했다. 근대 한국학은 그러한 세계사적・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연동되어 한국근대사의 실천적・사상적 특징을 발휘하며 탄생했다. 이 점은 한국학이 내셔널과 트랜스내셔널이 병존하고 문화다양성의 공존하는 시대에 일국사적인 관점의 한국학에 대한 비판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학의 형성을 동아시아의 연동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계사적・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국학의 위상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72]

그러나 1910년 이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제국 지역(Japanese Imperial Area)의 일부가 되어 식민지적 강제와 규정을 받는 비주체적인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더 이상 국가 단위의 정체성 문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졌다. 즉 식민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한국학은 주체성의 제약을 받았다. 식민과 반식민의 한국연구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반식민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추구의 한국의 정체성 문화와 지식을 만들고자 했고, 일제 당국은 식민주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화와 지식을 만들고자 했다. 일제시기 '조선학', '조선', '전통', '민족'이라는 단어들은 한국인 주체자들만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의도와 맥락(context)는 달랐다. 즉 '조선학', '조선', '전통', '민족'이라는 기표는 랑그(langue)로서 발화되지만 발화자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 기의를 담고 있는 빠롤(parol)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기표에 여러 기의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선학', '조선전통'과 관련한 기표들이 다양한 기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된 언어들에 대한 의미 파악이 세분화・입체화가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변화 발전한 근대 학술사로서 한국학의 내용과 학문적 체계화의 실상이 풍부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한국학의 인문학적 연구를 깊게 해가는 관건이기도 하다. 근대 한국학의 인문학적 연구의 심화는 AI시대에 빅데이터화해 가는 한국학 자료의 용어선정 기준과 해석의 맥락을 잡는 데에 유용한 전문

72) 한국학을 복수의 한국학, '동아시아 한국학'으로 구축할 것을 제시한 김경일, 백영서, 이영호, 류준필, 김종준 등의 연구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국학의 다면성을 보여준다. 김경일, 앞의 글; 백영서, 「인문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 『한국학연구』 제1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7; 류준필・김종준, 「동아시아 한국학의 형성」, 『동아시아 한국학의 형성』, 소명출판, 2013; 이영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동아시아 한국학'」, 『한국학연구』 제15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6.

성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은 다양한 근대 주체들을 복원하는 한국학 연구의 진전과도 관련있다. 흔히 '한국적'이라는 것에 대해 '민족'을 주어로 하여 전근대적인 전통문화를 획일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정체성을 획일화하여 규범화하는 것은 연구의 편협성과 왜곡을 낳는다. 근대주체인 국민・시민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들의 집합이다. 근대 국민・시민을 구성하는 다중적・중층적 주체들, 예컨대 여성, 어린이, 청년, 노동자, 디아스포라 한국인 등의 정체성도 작동했다. 한국학은 이들의 다중적・중층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될 때 보다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확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세계화시대 인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적용되어야 하듯이, 근대 한국학도 다양한 근대주체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대 한국학이 근대를 지향하면서도 근대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관점이자 방법론이다.

▮ 참고문헌

『개정판 丹齋申采浩全集』, 『官報』,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동아일보』, 『서북학회월보』, 『서우』, 『六堂崔南善全集』, 『飮氷室文集』, 『朝鮮及朝鮮民族』, 『조선일보』, 『태극학보』, 『湖南學會月報』, 『황성신문』.

강중기 역, 「량치차오,「정치학 대가 블룬칠리의 학설」」, 『개념과 소통』 제8호, 한림과학원, 2011, 251-286면.

駒込武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3, 129-167면.

김도형, 『대한제국기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_____,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2018.

류시현, 『최남선연구』, 역사비평사, 2009.

류준필・김종준, 『동아시아 한국학의 형성』, 소명출판, 2013.

방기중, 『한국 근현대사 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백영서, 「인문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 『한국학연구』 제1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7, 41-55면.

_____,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서은주・김영선・신주백 편, 『권력과 학술장 ; 1960년대-1980년대 초반』, 혜안, 2015.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 학술장의 재구성에 관한 시론적 탐색」, 『역사문제연구』 제26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167-202면.

_____,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체계와 문・사・철의 제도화, 그리고 식민지 공공성」 『한국교육사학』 제34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57-81면.

앤서니 스미스, 『족류 :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 선인, 2015.

왕현종,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윤상현, 「1920년대 초반 식민지조선의 자유주의와 문화주의 담론의 인간관・민족관」,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317-344면.

이영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동아시아 한국학'」, 『한국학연구』 제15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6, 9-20면.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_____, 「20세기 전반기 조선 자치론의 문화적 정체성—민족 표상의 경계 읽기—」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경인문화사, 2012a.

_____, 「글로벌 코리아의 한국학」, 『제13회 세계코리아포럼논집』, 국제코리아재단, 2012b.

_____,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 연구에서 근대정체성 서사와 다산 정약용」, 『역사교육』 제140집, 역사교육연구회, 2016, 269-296면.

_____, 「'민족문화'의 기표와 기의, 문화 헤게모니」, 『한국사 한 걸음 더』, 푸른역사, 2018.
_____,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3·1운동 100년 5권—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이태훈, 「신남철의 보편주의적 역사인식과 지식인 사회 비판」, 『민족문화연구』 제6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305-355면.
이태훈·정용서·채관식 편, 『일제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목록』, 선인, 2015.
임형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 사계절, 1996.
조동걸,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선인, 2018.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2.
허 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0.

納武津, 『民族性の研究』, 東京: 日本評論社, 1920.
東鄕實, 『植民政策と民族心理』, 東京: 岩波書店, 1925.
山本新, 『周邊文明論 — 歐化と土着』 東京: 刀水書房, 1985.
色川大吉, 『明治の文化』, 東京: 岩波書店, 1982.
宋本三之介, 『明治思想における傳統と近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鄭師渠, 『晚淸國粹派—文化思想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W. Schmidt 著, 大野俊一 譯, 『民族學の歷史と方法』, 東京: 彰考書院, 1944.

Eric Hobsbawm,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Timothy Baycroft, *Nationalism in Europe 1789-1945*,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ty of Korean Studies

Lee, Ji-Won*

The origin of Korean studies originated from the modern attribute of the recognition and explanation of nations and ethnic unit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world. This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Korean studies as a product of modernity and to examine its modernity. Her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modernity of Korean Studies from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is the linkage of making East Asian modern cultural identity. Second is the universality of the birth of National Studies in the world's modern academic history. Third is colonialism and ideological and practical concerns about it.

Since the 19th century, East Asia has been battered by a Western-led world system. Korea, like other East Asian countries, tried to create a nation-state and a modern subject who did not give up its Asian identity while accepting Western modernization as the trend. At this tim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shared the translation of '國粹' and showed the intellectual linkage that creates the cultural identity of modern nations and peoples. Modern Korean Studies was born with the practical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history in connection with such common historical and East Asian commonalities.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studies as the linkage of East Asia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the status of modern Korean studies as a world historical and East Asian frame.

Since 1910, Korea has become a colony of Japan, becoming part of the Japanese Imperial Area and undergoing globalization under colonial coercion and regulation. Colonial and anti-colonial Korean studies have been in competition. Several signifier are used in a single signifiant, and signifiant related to 'Chosun Studies' and 'Korean tradition' are used for various signifier. Considering these points, grasp of meaning needs to be subdivided and solidified. Only then will the contents and academic

* Profess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Division, Dealim Univ.

systemization of modern Korean academic history of Korean Studies change and develop through the colonial period. This is also related to the progress of Korean studies in restoring various modern subjects. Just as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should be applied normatively as a basis for human coexisten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modern Korean studies needs to be extended to reveal the identity of various modern subjects. This is a perspective and methodology in which modern Korean studies aims at modern and opens up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modern.

Keywords: Korean Studies, Chosun Studies, East-Asia, Modernity.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17.